

문학교육과 천재성 계발 문제

정 현 기 · 문학평론가 | 연세대학교 교수



한국의 문학교육 문제

예술이나 문학이 교육만으로 그 최고봉에 도달할 작품을 산출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은 현대교육이라는 집단 체제의 교육방법으로도 문학·예술이라는 결실을 맺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 때문에 던지는 것이다. 집단교육, 현대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교육이란, 실상 우민화 정책 일환이라고까지 하는 아니더라도, 평준율에 맞는 사람을 길러내기 위한, 그래서 평범하고 상식적인 인간을 길러 양순한 시민으로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아닌가? 특이한 개성이나 능력을 지닌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현대교육이라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다. 문학에 관련하여 논의를 좁힐 때 우리는 여러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다.

한국의 현대문학을 논할 때 작가들의 탄생과 그들의 문학교육을 생각하려면 일단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작품 생산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개항기로 풀이되는 이른바 1900년대로부터 1930~40년대에 이르는 일제 침략기, 다음은 광복기인 1945년부터 6·25 동족전쟁기로부터 일본 군사교육 광복군 출신 및 일본 육사출신 군인 박정희가 정권을 찬탈한 1970년대까지, 마지막으로 박정희 군사독재 시대에 뒤이은 두 명의 군사독재자(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대)를 거치는 1980년대로부터 2000년대 오늘에 이르는 민정시대.

하나의 삽화 - 1904년도에 이인적이 일본에 국비 유학생으로 떠났을 때, 그는 무슨 대학을 나왔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정치학을 공부했으리라는 짐작은 우리 사이에 퍼져 있다. 그가 한국 근대문학의 개척자라는 칭호를 입었을 때 과연 그가 어떤 문학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는 단지 뛰어난(?) 시대감각을 지니고 있어서 권력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 어디에 붙어야 현실적으로 출세를 할 수 있는지를 꿰뚫어 읽을 줄 알았던 것 같다. 그가 쓴 이른바, 소설의 내적 형식으로 읽을 때 그야말로 가당찮은, 일본 밀정소설(密偵小説) 『혈의 루』나 『치악산』을 써서 한

각급 대학교에서 '국어문학'과 말고 '문예창작학과'를 특별히 신설하여 문학 지망생들을 모아 지도하게 된 것은 특기할 만한 것이었다. 중앙대학교를 필두로 명지대학교, 조선대학교 등 4년제 대학교가 문예창작학과를 신설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통을 자랑하는 예술전문대학교가 문예창작학과에 큰 비중을 두고 문학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서울예술대학'을 그 대표로 들 수 있다. 이미 이곳 출신 작가들이 문단에 많이 배출되어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때나마 한국 근대소설의 '혜성(彗星)' 같은 존재로 추앙되던 시절이 있었다. 치기와 어리석은 자만심을 큰 미덕으로 들고 나온 김동인은 그의 『춘원연구』 앞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국초(菊初) 이인직(李人植) 한 개의 혜성이 나타났다. 국초 이인직이었다” *김동인, 춘원연구, 동인전집 8권(서울:홍지출판사, 1988), 457쪽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관념과 정책을 확대 재생산하여 한국민들에게 선전 홍보에 중점을 둔 이런 지식 밀정을 '한 개의 혜성'이라고 읊을 수밖에 없는 당대의 이런 문학적 장님들이 있었던 한 편에서, 진정한 의미로 문학의 미적 함량을 깊이 한 작가와 작품들이 이 시기에 엄청난 울림으로 나타났다. 1920년대를 거쳐 1930년대에 이르는 기간 한국에는 그야말로 혜성과 같은 고뇌의 작가들이 출생하여 별빛 같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현진건, 염상섭, 정지용, 이상, 윤동주, 채만식, 이기영, 한용운, 이상화, 이육사, 오장환 등 문인들은 한국어의 미학적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그들이 문학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밝히는 일은 거의 어리석은 일에 속한다. 그들은 그야말로 문학교육이라는 이름의 정규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국작가들의 작품을 읽고 스스로 세계를 꿰뚫어 읽으며 자기들이 써야 할 말의 꼴과 벌집들을 스스로 결정하고 만들어 나아갔기 때문이다. 어둠과 고통, 슬픔과 절망이라는 질료는 작품 내용을 채우는 꼴이었고, 작품의 거푸집을 짓는 밀랍(蜜蠟)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그들 작가의 스승이었고 살아 있는 문학교육의 교재였다. 문학교육의 가장 큰 교재와 스승은 삶의 질료 속에 든 폭력이고 억압이며, 부조리, 고통의 씨앗들임을 이들을 통해 우리는 잘 알 수 있다.

- 1930년대의 천재작가 이상이 비참하게 살다가 29세에 죽었고, 동시대에 김유정이나 윤동주 또한 굶주림의 고통을 겪었으며 남의 나라 감옥에서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죽었다. 19세기의 프랑스 작가 발자크가 어머니로부터 버림받다시피 한 소외와 고통을 씨앗으로 성장한 작가였다면 1930년대나 1970년대 한국에 수많은 작가들을 키운 것은 삶이라고 하는 고통의 판이었다.

또 하나의 삽화 - 1960년 4월 19일, 미군정의 비호를 받아 정권의 재미를 본 이승만 친일 정권을 무너뜨린 학생혁명을 일거에 무력화시키면서 총칼로 민권을 찬탈한 관동군 출신 박정희 장군은 정권을 움켜 쥐 다음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전국의 중·고등학교 조 회시간에 읊도록 강제하였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시작한 이 선언은 그가 동료에게 총을 맞아 죽을 때까지 유효한 구호였고, 이 구호에 걸맞는 개발 이데올로기는 무자비하게 추진되었다. 전국의 산야가 까뭇개어져서 돈을 만드는 기계창으로 변하였고, 이와 더불어 농촌이 해체되면서 도시는 팽창일로의 변모를 거듭하였다. 도덕철학과 지성은 무시되었고 오직 눈에 띄는 가치만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가치관이 세상을 뒤덮게 되었다. 공장굴뚝이 시커먼 매연으로 덮이면서 바다의 물과 산야의 흙, 나무, 개천의 맑은 물은 더 이상 밟고 마실 수 없는 불신의 늪을 이루게 되었다. 새로운 식민주의 방식으로 내세운 세계화라는 이름의 미국 기업공화국의 한 하청국가로 나아가게 된 사정이 박정희 정권의 폭력과 부패로 이어져 왔음을 우리는 안다.

바로 이 때, 1970년대에 등장하여 작품들을 왕성하게 써 낸 작가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눈부신, 눈먼

구호 밑에 숨겨진 어둠 속에서 문학은 기적처럼 싹 터 올랐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우리는 정식으로 문학교육을 받은 뛰어난 작가들을 만난다. 1970년대 작가 군으로 일컬어지는 많은 작가들이 이에 속하는데, 이문구나 김주영, 김원일, 조세희, 박상룡 같은 작가들은 정식으로 문예창작학과를 나온 작가였다. 서라벌예술대학, 뒷날 이 대학은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로 바뀌었지만, 이들 학교 출신들의 숫자나 그들 작품의 질량은 가히 무시할 수 없는 빛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작가들에게도 현실적 삶의 질료는 충분한 자양으로 그들의 창작욕을 북돋았고, 1930년대 작가 못지않게 그들은 지적 억압과 고통, 절망을 안고 창작에 몰두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식으로 문학수업을 받지 않은 수많은 작가들이 이 시기에 등장하였다는 점은 바로 문학교육 그 자체가 빼어난 시인이나 작가들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되겠기 때문이다.

최인훈, 정현중이나 황동규, 마중기, 김광규, 김지하, 송수권, 홍성원, 윤홍길, 황석영, 김승옥 등 수많은 별빛 같은 작가들이 이 시기에 빛나는 작품들을 산출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문학교육 그 자체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어떤 등밀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 앞에는 아직도 그들 작가들이 끝벌의 격으로 삶이라는 꽃들 속에서 꿀을 딸 만큼 충분한, 고통스런 삶의 꽃밭이 널려 있었던 것이다.

문학교육이란 실제로 가능한 어떤 것인가

1980년대 후반부터 각 대학교 입학 전형에서 논술고사 점수를 가산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글쓰기 교육의 중대한 어떤 전반적 변혁을 꾀한 교육정책이었다. 이에 따라서 중·고등학교에서는 논술시험을 위한 수업이 생겨났고 논술과외가 성업을 이루게 된 것을 우리는 안다.

전반적으로 그 이후의 대학생들 글 솜씨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가늠하기란 어렵지만 그래도 글쓰기의 기

- 본적인 능력은 향상되었으리라고 일단 평가해야 옳을지 모른다. 하지만 막상 그런 대학 입학자격 가운데 논술고사를 추가하였다고 해서 문학적 글쓰기가 향상되었다고는 속단하기가 어렵다. 논술고사 추가와 함께 각 대학교에서 문학특기자들을 입학 가산점으로 특혜를 준 것까지도 이 시기로부터 특별한 교육정책의 변화였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급 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과’ 말고 ‘문예창작학과’를 특별히 신설하여 문학 지망생들을 모아 지도하게 된 것은 특기할 만한 것이었다. 중앙대학교를 필두로 명지대학교, 조선대학교 등 4년제 대학교가 문예창작학과를 신설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통을 자랑하는 예술전문대학교가 문예창작학과에 큰 비중을 두고 문학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서울예술대학’을 그 대표로 들 수 있다. 이미 이곳 출신 작가들이 문단에 많이 배출되어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들 가운데에서 분명 뛰어난 문인들이 배출되어 훌륭한 작품들을 우리가 지니게 될 것임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그런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관한 한 이 문학교육의 문제가 여기서 모두 해결되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뛰어난 작가가 이런 교육절차를 받아야만 태어나리라는 판단에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다른 하나의 삽화 - 예술전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의 말 가운데 첫 번째 고민 하나는 이들 학생들을 교육해 보면 일정한 수준의 작품들을 써내는 실력을 쌓는다. 문제는 이들 가운데 뛰어난 천재성을 발휘하는 학생이 그렇게 자주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학적 천재성의 문제, 천재에 관한 한 일반적 학교교육으로 그것의 계발은 가능한 것인지를 다시 묻게 만드는 것으로 이 교육의 문제는 다시 원점 질문으로 환원된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서 필자가 직접 겪고 있는 이야기의 하나이다. 작년년부터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는 문학특기자들을 위한

문학은 우리 시대에 또 우리나라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누가 이 문학작품 산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훌륭한 문학작품이 얼마나 그 언어공동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우선 점검하는 일로부터 문학교육 논의는 시작돼야 할 것이다. 영상매체나 기타 다른 매체의 예술품이 이미 문학의 영역을 점령하여 그나마 문학의 명맥마저도 끊어지지 않는 것인지부터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 오늘날 문학작품을 누가 읽는가? 영상매체로의 전환도 실은 이 문학작품의 씨앗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누가 하고 있는가? 삶에 관한 이야기를 짜 읽는 문학의 역할이 크다. 어쩌면 영상매체가 살길은 문학작품의 왕성한 내용이 토대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임을 누가 알고나 있을까?

지도교수 제도를 마련하여 20여 명의 문학특기자들을 특별히 지도하려는 학교 당국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을 지도하려고 할 때 우선 제기된 문제는 학생들 자신이 지도에 참가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다. 일단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그의 특기를 발산하려는 뜻이 없거나 있더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과외수업이나 아르바이트로 시간을 많이 쪼개 쓰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에 만나 시도해 보려는 글쓰기의 실천이 부진할 뿐만 아니라 학교 당국에서조차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다. 몇몇 글쓰기에 전념하는 학생들과 이 과정은 느리게나마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학은 우리 시대에 또 우리나라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누가 이 문학작품 산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훌륭한 문학작품이 얼마나 그 언어공동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우선 점검하는 일로부터 문학교육 논의는 시작돼야 할 것이다. 영상매체나 기타 다른 매체의 예술품이 이미 문학의 영역을 점령하여 그나마 문학의 명맥마저도 끊어지지 않는 것인지부터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문학 독자의 인구를 확대하는 일로부터 학교교육의 판을 짜야

오늘날 문학작품을 누가 읽는가? 영상매체로의 전환도 실은 이 문학작품의 씨앗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누가 하고 있는가? 삶에 관한 이야기를 짜 읽는 문학의 역할이 크다. 어쩌면 영상매체가 살길은 문학작품의 왕성한 내용이 토대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임을 누가 알고나 있을까?

- 카프카적 현상이라는 말을 만든 체코 출신의 유대인 작가 프란츠 카프카는 그가 죽은 지 40여년 만에야 세상에 알려진 작가였다. ‘방어의 아무런 수단도 갖지 못한 인간을 절멸시키려는, 악마들로 가득 찬 세계 앞에 발가벗겨진 상태에 놓였다는 인식으로 카프카는 글쓰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의 작품들은 그가 죽은 지 40여년 만에야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그런 작가들을 우리는 천재성 운운하면서 존경하거나 경이로운 눈길을 준다. 우리들 동시대에 과연 이런 천재작가는 없을 것인지? 그리고 이런 위대한 고통의 순례자이며 천재적인 작가를 배출하기 위해 특별한 교육의 장을 만들 수는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떤 것일 수 있을까? 문학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과연 천의무봉한 천재들을 가두어 기를 수가 있을 것인가? 전국에 확산되어 보급된 노래방 기기가 사람들의 노래실력을 쌓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문학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에 좋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런 장소를 통해 각기 사람다운 노래의 자발성을 탈취한 외에 음악의 음악성을 모두 박탈한 교훈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필자는 문학교육의 장을 오히려 문학작품 독서의 시장 넓히기로 전환하는 교육의 장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적어도 인문학의 기본적인 교육 구조를 필수과제로 만들어 문학 독자의 인구를 확대하는 일로부터 각급 학교교육의 판을 짜야 한다고 생각한다. 🌱